

# 기업들 채용 '기지개' 청년인턴 모집 나서

**IBK기업은행** 청년인턴 300명 모집  
**하나은행** 대학생 인턴 채용 진행  
**네이버웹툰** 채용연계형 인턴십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네이버웹툰 등이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17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의 주요 기업 인턴사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2020년 하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 중이다. 이번 채용을 통해 영업점 및 본부 업무 지원 일체를 담당할 청년인턴 총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수인턴에 한해 신입행원 공채 시 필기시험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전형절차는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실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인턴 지원은 오는 21일 14시까지 IBK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하나은행 역시 대학생 인턴을 채용 중이다. 모집부문은 디지털, 자금·신

탁, 기업금융·IB 분야이며 인턴십 우수자에게는 2020년 하반기 신입 공채에 한해 서류·필기·1차면접 전형 면제(그 외 인턴십 수료자는 서류·필기 전형 면제 혜택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개인별 온라인 인성, 실무진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인턴 지원은 20일 18시까지 하나은행 대학

생 인턴 채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네이버웹툰(㈜)이 오는 24일 18시까지 하계인턴십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개발, 리서치, 서비스, 광고 각 부문이다. 이번 채용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대학교(원) 졸업 예정자(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및 기졸업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턴십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24일 18시까지 네이버웹툰(㈜)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제26회 한신상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신대

## “80년 전통 넘어 100년 향한 희망의 시대”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예식 성료  
제30대 박상규 이사장 취임패 수여

한신대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경기 캠퍼스 살림채플에서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취임식 및 개교 80주년 기념예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뜻깊은 한신대의 개교 8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행사는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예배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취임식 ▲제26회 한신상 시상식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육순준 총회장은 '우리의 중심에 있

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한신대의 80년 전통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며 "여전히 살아있는 정신으로 '민족·민주 한신', '통일·평화 한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100년을 향한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한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취임식은 장세광 한신학원 이사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한신학원 제29대 김일원 전 이사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제30대 박상규 이사장의 취임서약과 취임패 수여가 이어졌다. 광주성광교회 담임 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 2월에 제30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100개 대학 방역현황 현장점검

29일까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권역별로 100개 대학에 대한 방역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한다. 정부가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대학들이 실험·실습 수업에 한

정한 대면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다. 점검 대상 대학은 일반대 60개교, 전문대 40개교다.

대상 대학은 규모,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중대본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사전 발열 검사 실시 여부, 기숙사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현진 기자

# 방통대 “‘정전’ 속 삶의 지혜 함께 나눠요”

(正典)

**고품격 강연 콘텐츠 ‘열린연단’**  
23일 첫방송, 6개 섹션 90분간 방영  
지적욕구 충족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학TV OUN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강연시리즈 프로그램 ‘열린연단’을 오는 23일부터 90분간 방영한다.

/한국방송통신대

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학TV OUN(이하 방통대 방송대학TV)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강연시리즈 프로그램 ‘열린연단’을 오는 23일부터 90분간 방영한다.

방통대 방송대학TV와 네이버 문화재단이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제작한 ‘열린연단’은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 강연 프로그램이다. 매년 시대의 석학들을 초청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삶의 여러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는 지적 담론

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대 방송대학TV ‘열린연단’은 오는 23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연간 52회 진행된다. 재방송은 일요일 오전 10시다.

이번 강연시리즈 주제는 ‘문화와 문화정전’이다. 각 시대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온 ‘정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제1강 ‘윤리와 세계 이해-이성과 감정’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문명의 정전 ▲서양 고전과 그 역사적 의미-희랍적 전통 ▲근대 과학과 인간의 삶 ▲서양 근대 문명과 그 세계적 영향 등 6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열린연단 제작진은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요즘 고품격 강연 콘텐츠 ‘열린연단’을 통해 삶의 지혜와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라며 “방통대 방송대학TV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방영하여 평생교육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끝없는 사건·사고... 해이한 軍기강, 시민의 위협으로



문명철 기자

국방 칼럼

군이 원칙과 기본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군이 가진 폭력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 12.12같은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것처럼 말이다.

군당국은 지난달 3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기강 사건에 대해 병 사고 및 징계 감소를 근거로, 군 기강은 해이하지 않다면서 군은 투명하게 병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구타사망’ 이후 군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병들을 통솔하고 무사히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간부들의 문제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지난 2월부터 5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외부접촉과 회식 등을 자제하고 휴가를 통제하는 국방부의 지침을 어김없이 깬 주연들은 간부들이다. 물론 간부들의 어려움 모르는바도 아니지만, 도를 넘는 사건을 내부적으로 응

호하는 목소리는 옳지 않다.

대대장이 음주후 심야에 장병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했고, 대위가 음주후 추대를 벌였다. 술에 취한 부사관들이 동성의 상관인 남성 중위를 추행했다.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맨 정신에 화풀이 삼아 무참하게 구타한 상사도 있었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군 간부들이 바로서지 못하고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대충 징계해 온 국군의 나쁜 ‘군대문화’일지 모른다.

사실 간부의 군기강 문제는 창군기 때부터 지금까지 쪽죽 내려온 부끄러운 국군의 전통이다.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에는 최전방 대대장들이 대대원을 이끌고 월북했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해서는 안될 특별위안소를 운영해 상당수의 군간부들이 이에 연루되기도 했다.

휴전 이후에도 대대장이 월북을 하거나, 소대장들이 무장탈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육군 중위가 연쇄 강간을 벌였고 군교도소를 탈옥해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강력하고 끔찍한 군기강 사고 다수는 간부들이 주연이었다, 그때마다 군

당국은 은폐 축소하기 바빴다.

며칠 전 부산대학교를 방문한 적 있다. 부산대학교 너더 옆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홍보에 나선 후보생들을 봤다. 잠시나마 캠퍼스에서 사관후보생 홍보를 하던 동기생들과 도왔던 추억이 떠올라 미소가 나왔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주변을 지나던 공군대위와 사관후보생들이 정면으로 마주했는데 이들은 대위와 함참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경례도 없이 자리를 지나쳤다. 과거처럼 큰 군기강 위반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기본은 여기저기서 새고있는 것 아닐까.

지난해 지상군페스티벌의 전시행사를 돕기 위해 육군본부에 있는 계룡대를 방문했다. 행사특성상 현역 육군간부들과 함께 전투복차림으로 계룡시내를 나섰는데 노신사 한분이 우리를 불러세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퇴역 중령이라 밝힌 그는 “최근 수년간 계룡시내에서 자네들처럼 군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경례하는 군인을 본 적 없다”면서 “군간부는 기본이 서야 하오. 우리들은 못했어 그러니 총을 시민들에게 겨눴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captainm

## 일벌백계 나선 대학가... ‘박사방’·‘N번방’ 운영자 징계 추진

관련 대학, 학칙내 최고징계 퇴학 고려

서울과학기술대가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파’ 강훈(19)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24) 씨도 재학 중이던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이번 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인 두 대학 모두 ‘퇴학’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기대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이번 주 중 보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



(왼쪽부터)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공범 ‘부파’ 강훈,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뉴스1

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2001년생인 강씨는 올해 서울과기대 인문사회 학부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

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 6일 구속기소됐다. 일명 ‘박사방’ 개설 초기 ‘부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혐의다.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 씨도 재학 중인 한경대에서 퇴학 위기에 놓였다. 한경대 측은 현재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칙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절차를 밟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